

## 필리핀,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통한 성장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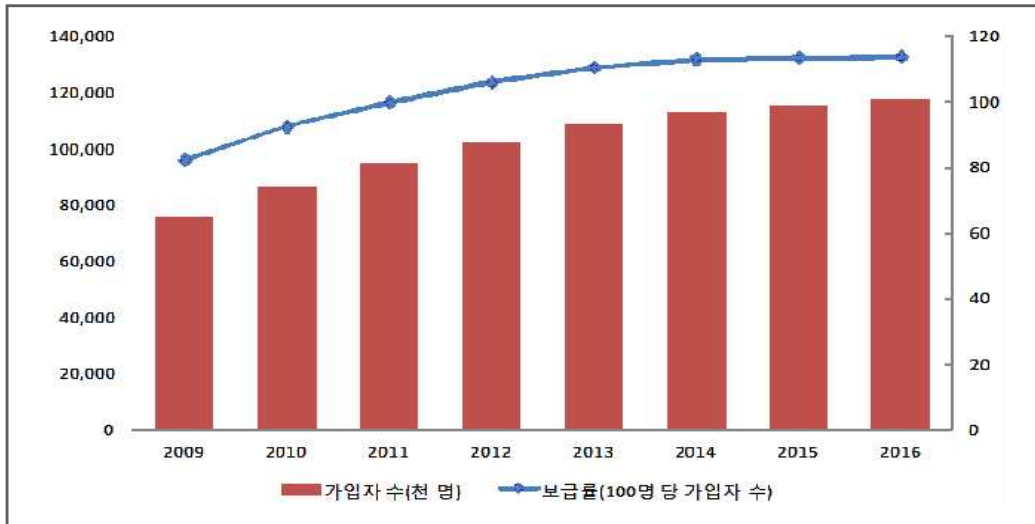
### 1. 필리핀 이동통신시장 현황

#### □ 이동통신시장 성장세 둔화

-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룸에 따라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, 가입자당 평균수입(Average Revenue Per Unit: ARPU)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.
  -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후불통신서비스, 부가서비스 등 수익률이 높은 부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,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 등의 대체통신서비스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임.
- 한편, 3G서비스 가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 기준 약 828만 명(100명 당 8.7명)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2년에도 전년 대비 약 32% 증가한 1,092만 명(100명 당 11.3명)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필리핀의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즈(Smart Communications, 점유율 51.6%), 글로브텔레콤(Globe Telecom, 점유율 31.5%) 및 디지텔(Digitel, 점유율 16.8%)임.
  -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즈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장거리통신회사(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: PLDT)가 디지텔까지 인수함에 따라 글로브텔레콤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음.



<그림> 필리핀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



자료: 각 통신사업자 및 BMI.

## 2. 이동통신시장 네트워크 개선 및 경쟁 심화

### □ 주요 이동통신 업체 네트워크 개선 노력

- 필리핀 장거리통신회사는 자회사인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  - 동 사업은 2011년 초에 화웨이(Huawei), 에릭슨(Ericsson) 등의 통신회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, 2012년 중순 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.
  - 구체적으로는 통신 안정성 및 통화품질 개선, 광섬유 케이블 구축을 통한 도시 외 지역 브로드밴드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, 이를 통해 5,0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됨.
- 글로브텔레콤 역시 통신설비 업그레이드 관련 약 2,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.
  - 이는 PLDT 등 경쟁사들에 대항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, 3G망 확보, 광섬유 네트워크 확장 및 4G 서비스 준비가 주요 추진 목표임.



### 〈표〉 필리핀 주요 통신사업자별 가입자당 평균수입 (ARPU)

단위: 필리핀 페소

구 분		2010.6	2010.9	2010.12	2011.3	2011.6	2011.9
스마트 커뮤니케이션즈	평균 ARPU	164	159	158	146	146	141
	후불통신시장 ARPU	1,257	1,257	1,257	1,205	1,205	1,170
글로브텔레콤	평균 ARPU	172	159	167	162	-	-
	후불통신시장 ARPU	1,300	1,168	1,176	1,090	957	915

자료: 각 통신사업자 및 BMI.

#### □ 후불통신시장 경쟁 심화

- PLDT와 소속 계열사가 주로 선불통신시장(prepaid market)에 집중함에 따라 글로브텔레콤은 후불통신시장(postpaid market)에서 디지털과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<sup>1)</sup>하였음.
  - 글로브텔레콤은 네트워크 규모와 통신기술 측면에서 PLDT와의 경쟁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비교우위를 지닌 후불통신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.
- 후불통신시장의 ARPU가 일반통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 부문의 확대가 예상되며, PLDT는 이를 감안하여 후불통신시장에서의 기반 확보를 위해 디지털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.
  - 일반통신과 마찬가지로 후불통신시장의 ARPU 역시 점차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, 통신사업자의 평균 ARPU가 2011년 기준 130~160페소인 반면, 후불통신시장의 경우 900페소가 넘음에 따라 후불통신시장에서의 점유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.
-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 확대는 서비스 이용가격의 하락을 동반하고 있으며,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필리핀 이동통신시장의 질적 성장이 기대됨.

【이 순 재】

1) 후불통신시장에서 글로브텔레콤과 디지털은 2011년 말 기준 각각 146만 명과 15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였음.